

2021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 비 고 |
|---------------|------|---------|-----|-----|
| | | 위 원 | 방송국 | |
| 2. 23. 15시 | 대회의실 | 10명/10명 | 3명 | |

- 시청자위원 불참자(0명) 명단 :
- 방송사 주요참석자 : 시청자센터장, 보도국장, 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1 | 9 | - | - | - | - | - | - | 10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합계 |
|-----|-----|------|-----|----|
| 건 수 | 10 | - | - | 10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 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계 | 2건 | 2건 | |
| 보도 | <p>맨 마지막 뉴스로 날씨를 다루면서 노랫소리가 나와 방송사고 인줄 알았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오늘 날씨와 맞는 노래를 선곡해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색다른 시도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랫소리와 기상캐스터의 설명이 뒤섞여 노래가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기상캐스터의 날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좀더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날씨 정보 전체시간을 20초 정도 더 늘리고, 기상캐스터의 오늘의 날씨에 맞는 노래 소개 후 10초 정도 노래를 들려준 후 볼륨을 좀더 낮춘 상태에서 기상캐스터가 날씨 정보를 전달한 후 약 10초 정도 볼륨업을 해서 노래가 흘러나온 후 종료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허찬행 위원)</p> | <p>매일 똑같은 BGM 대신 당일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오전, 저녁 두 차례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기상캐스터의 설명이 서로 어우러져 방송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1.1월 조치></p> | '20.11월 |
| 보도 | <p>생활경제 분야 보도비중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련보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다른 분야보다는 보도비중이 낮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 물가문제 등과 같이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경제 관련 내용은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적으며,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생활경제 분야의 보도비중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박성용위원)</p> | <p>새해 들어 경제부는 '삼겹살 23%양파 64%...심상찮은 밥상 물가' 등 생활경제 기사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성 보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월 조치></p> | '20.12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 '해당사항 없음'

| 안 건 내 용 | 조치(개선)내용 | 비고 |
|---------|----------|----|
| - |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해당사항 없음'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 | |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해당사항 없음'

| 상시의견수렴방법 | 내용 |
|----------|----|
| |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 | <p>전반적인 화면 구성이 타 방송사에 비해 좋아 보임. 특히 화면 오른쪽 위 '시간 안내'가 드러나 보여 좋고, '시간 안내' 아래 '코로나 감염 안내'도 코로나의 전체 상황을 알고 해외 상황과 지역별 상황도 계속 안내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음. (* 타 방송사는 지역별 감염 상황만 안내) 맨 아래 스크롤 뉴스자막은 분야별(예: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을 맨 좌측에 표시)로 나누어 송출하면 더 좋을 것 같음.(문해주위원)</p> | <p>화면 구성에 대한 긍정 평가에 감사합니다. 스크롤의 경우 YTN과 달리 뉴스가 흐르는 방식으로 구성해왔습니다. 이는 '24시간 뉴스가 흐른다'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는 연합뉴스TV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편, 새로 나오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야별 구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보이나, 주요사안의 경우 '묶음'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 | <p>2월15일 김대호의 경제읽기 방송은 당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을 신속하게 분석해 보도함으로써 뉴스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지나치게 많은 주제들을 소화하려 하고 있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손정의 회장이 쿠팡 상장으로 인해 얼마나 차익을 남기게 되었는지 등, 다분히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사항들을 소개, 잘 모르는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하지 않고 핵심사항도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을 구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였음,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이 까다로워, ①초반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신생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사실, ②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어서 벤처창업자의 주식시장을 통한 지분희석 및 경영권박탈 우려가 상장저해 요인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면 더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는 신생벤처 기업들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제도, 그러나 실리콘밸리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굉장히 희귀한 제도로 설명하는 부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유환익위원)</p> | <p>13시 뉴스에 고정편성돼 있는 <김대호의 경제읽기> 코너는 경제 패널의 출연은 시청률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기존 관념에 도전해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2년 넘게 지속해오면서 나름대로 고정 팬층도 확보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데일리코너'이다 보니 당일 보도되는 뉴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위주로 진행되며, 중요 이슈의 경우 하루에 그치지 않고 2~3일 연속적인 주제로 이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도 보도 첫 날은 미국 증시 상장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위주로 다뤘지만, 다음날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 등을 연속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주제와 시각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 | | |
| 보도 | <p>연합뉴스TV의 '문화·연예'분야 기사는 특정 분야(영화, 대중음악 등)에 너무 편중되며 그 중에서도 자극적인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하며, '문화(예술)·연예' 분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극히 부족하다 할 것임. 보도채널 특성상 속보 등 다른 분야 이슈 등으로</p> | <p>최근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이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대중 문화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대중 스타들의 신변잡기 등 자극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매주</p>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시청자의 관심과 집중을 끌 수밖에 없겠지만 24시간 뉴스채널이면 문화 예술에 어느정도 할애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새로운 정보로 문화예술 분야 코너 등 편성 또는 보도를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정경모위원) | 토,요일에 도서, 미술, 음악 에 집중해 리포트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수 예술 분야 관련 리포트는 2월에만 11건을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 | | |
| 보도 | 1/28 '부하직원 기소 성추행' 오거돈 기소 ... "권력형 성범죄"관련 보도에서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앵커의 보도내용에는 '피해자 가운데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등을 호소해'라고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자막에는 「피해자 2명... PTSD 호소해 강제추행치상 혐의 추가」로만 표기함, 그런데 서울역 등 공공장소에서 연합뉴스TV를 보는 시청자들은 통상 자막만 볼 수 있고 앵커의 발언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막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표현 대신 PTSD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자막만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은 순간 PTSD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막만 볼 수 있는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위 'PTSD'라는 표현 대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표현을 자막에 기재함으로써 자막만 볼 수 있는 시청자에게도 뉴스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음(김세한위원) | 지적하신 대로 앵커멘트에는 PTSD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함께 표기했으나, 자막에는 PSTD라고만 적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를 위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 보도 | 2월15일 06시32분에 '민식이법' 이제 곧 1년...스쿨존도 큰 변화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3월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 1년이 된다 "는 내용을 다루면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들에 관해 소개하 | 코로나 속 새학기를 맞아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등 학교 안전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p>는 장면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영상과 적절한 자막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인터뷰는 뉴스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의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구간 제한속도를 다음달 21일부터 시속 20km로 낮추는 등 어린이 보행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하여 곧 입학식과 개학식을 앞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준 것 같습니다. 신학기철 3월이나 9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스쿨존 주변의 위험한 상황들을 제보받아 어린이 교통사고관련 기사가 더 많이 나와서 좋은 영향으로 작용되어 조금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천경숙위원)</p> | | | | |
| <p>보도</p> | <p>매일 COVID19 이야기가 모든 뉴스 채널 에서 특보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 지역별 확진자 수 만 나오는데, 확진자 수의 추이도 중요하지만, 검사자 수가 적을 경우, 확진자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로 인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선, 확진자 수 옆에, 검사 수도 넣거나, 아니면 확진자/검사자 비율을 확진자(검사자)로 괄호 안에 넣는 방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수치중 하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얼마큼의 전파력이 있나를 통해, 코비드 감염의 전파 위험도(각 개인 일인당 전파 위험도)를 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메스콤에서 아주</p> | <p>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우상 그래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황에 따라 중요한 포인트를 담아 여러차례 변경해왔습니다. 우상 그래프 크기의 한계, 효용성의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검사자 비율, 감염재생산 지수, 누적 확진자 수 등 당국이 제공하는 다른 수치들은 매일 2차례 이상 진행하는 대담용 고정CG와 리포트용 CG를 통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쉽게 전달하겠습니다.</p>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가끔씩 이를 알려 주지만, 우측 위칸에 확진자 수와 같이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검사 수,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수, 감염재확산지수 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COVID19 질병의 추이를 알려 주었으면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정의식위원) | | | | |
| 보도 | 2월 4일 "전국 83만가구 주택 공급... 서울은 분당 3배 규모" 보도는 먼저 그동안 주택공급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늦게나마 반가운 보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보도의 대부분은 이번 정부들어 최대 규모로 전국 83만 가구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책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공공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용적률 기부채납방식 개선, 서울 외곽 신규 택지 공급 등 정부의 장밋빛 정책발표에 대한 단순보도(내용설명)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시민들의 반응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발표 이후 바로 시장의 평가는 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점(재산권침해, |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반응을 입체적으로 담았어야 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의 장밋빛 정책발표에 대한 단순보도를 피하려는 노력도 적지 않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당일만 해도<인센티브는 긍정적인데...'재산권 침해' 숙제>, <'획기적인 물량' 안정효과 기대...참여 유도 관건> 등의 리포트에서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 정책에 적지 않은 보완점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입지 없는 공급대책...우선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공급대책 발표에도 의구심 여전...불안한 실수요자> 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보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현실가능성, 품질저하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이 금번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들을 함께 다루어주기를 바랍니다.(박찬재 부위원장) | | | | |
| 편성 |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 채널로서 뉴스의 속보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뉴스의 심층성에도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특히 보도의 생명은 정치, 사회 부정부패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고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BC의 'PD수첩' '스트레이트' KBS의 '시사기획'과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파급효과가 큼니다.(권혁남위원장) | 탐사보도는 보도채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인력 등의 한계가 있지만 언젠가 타사에 결코 밀리지 않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토요일 저녁 <뉴스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독립편성해 한주간 중요했던 이슈를 기획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탐사보도, 기획취재 역량을 축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보도 | [사건큐브] '8살 딸 살해한 엄마...출생신고 조차 안된 이유는?'처럼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의 주요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룬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충격적인 사안들이 많고 국민들이 공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학대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거나 정부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가 많은 편인데 [사건큐브]는 아동보호시스템과 그 중의 중요 이슈 중의 하나인 출생통보제를 다루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안을 고민하는 보도였습니다. 반면 '입양가정이 문제?...'아동학대는 어디에나 있다"는 보도는 아동보호제도 중의 하나인 입양제도의 공공공화라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어 아쉬운 점이 |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단순히 사건의 과정과 법적 처벌 조항 등에 그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고자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건사고를 다룰 때 자막과 앵커 및 전문가 패널의 발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 환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는 표현과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p>있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처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계부, 계모, 입양부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여 편견을 일으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서는 통계를 인용하여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양부모에 의한 사망사건 보다 많다는 점을 인용하여 입양부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은 양부모 보다는 친부모가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학대부모도 입양부모보다 친부모에 의한 사망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실을 인용하여 마치 입양부모보다는 친부모가 문제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입양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절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하며 모든 친부모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입양아동이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입양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입양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범죄를 보도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세심하게 살펴 보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이현숙위원)</p> | | | | |
| <p>보도</p> | <p>2월11일 "온라인 쇼핑몰 낙장 정산에 판매자들 곤혹...빠른 정산 입법 움직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새로</p> | <p>의원 입법으로도 발의된 '빠른 정산' 논의는 이달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p>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p>운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위메프 등 이커머스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판매대금 지급시기라는 보도내용처럼 최근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안"의 핵심내용도 대금지급과 수수료 문제입니다. 향후에도 유통분야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온라인거래에서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추문갑위원)</p> | <p>도에는 업계가 최근 선보인 자동 선정산과 미래 선정산 등 새로운 상품대금 지급 방식을 이용한 판매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을 계획입니다.</p> | | | |